

##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창세기 5 : 21 ~ 24

**이 명 직** 목사(1896. 12. 2~1973. 3. 30)는 한국성결교회 사부로 존경받으시는 분이다. 목사님은 성서학자로 신학자로 교육자로 설교자로 한국교회사에 큰 영향을 끼치셨다. 본 란을 통하여 그분의 그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본다.

"에녹은 65세에 므드셀라를 낳았고, 므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 하였더라" (창 5 : 21-24)

**목**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에녹 뿐만 아니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증거한다. 그 외에도 이삭, 야곱, 모세,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요구하신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라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 고라" (계 3 : 4).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애는 참으로 거룩한 생

애, 완전한 생애, 행복한 생애이다.

그런데 어떤 이는 '나는 그러한 생애를 보낼 수 없다. 그 까닭은 세상풍조가 악함으로 세속 안에서 생활하는 처지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또 어떤 이는 '나는 재산을 관리해야 하고, 자녀들도 많으니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아내가 늘 불평하기 때문에', 또는 '남편이 완고해서' 또는 '가난한 생활을 유지하려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핑계댄다.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처지와 시대적 환경이 어떠했는가를 생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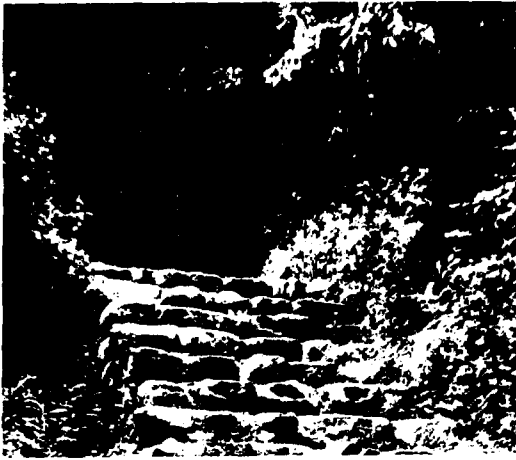
예족은 빈한한 생활을 성도에게 흔히 있는 일로 알고 사람이야 알든지 모르든지 원망하지 않고, 향기를 날리는 백합화와 같이 화평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제 1의 행복이요, 무상의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보자.

“예족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한 것을 보면 예족은 승려(僧侶)나 도사(道士)와 같이 가정을 떠나 득신으로 입산(入山) 수도(修道)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아내는 주방에서 일하고 자녀는 마당에서 뛰어놀고 자신은 밭에 나아가 땀 흘리며 노동하여 자연을 즐기며 천직을 수행하면서 하루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보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정의 처 자식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첫째가는 동반자이지 결코 거리끼는 방해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함에 있어 만일 처자나 가족이 방해가 된다 하면 그 방해는 표면적인 나타남에 있지 않고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다른 요인이 있는 줄 알아야 한다. 또 예족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시대는 문명이 극도에 달한 시대였다. 굉장한 건축물도 많았고, 시(詩) 잘

하는 인물도 많았고, 음악도 매우 발달되었었고, 철공업도 왕성하고 무기(武器)도 제조하였으며 목축업도 상당히 발달된 시대였다. 그 시대 형편이 오늘 이

시대와 별로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러나 예족은 이처럼 생활이 복잡한 시대에 살면서도 능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시대의 문명이 그의 심령상의 진보(進歩)를 방해하지 못하였다. 세상이 어떻하든 예족은 단순하고 순박한 생애를 택하였다. 그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이(利)를 탐하고, 명예를 구하기에 급급하였으나, 예족은 빈한한 생활을 성도에게 흔히 있는 일로 알고 사람이야 알든지 모르든지 원망하지 않고, 향기를 날리는 백합화와 같이 화평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제 1의 행복이요, 무상의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문명의 복잡한 생활도 결코 예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였다. 만일 누가 이처럼 복잡하고 생활이 고단한 시대이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렵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방해의 요인이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인 자유 연애주의가 매우 성행하여 “하나님의 아들(신자)들이 사람의 딸(불경건한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창 6:2). 이렇듯 그 시대는 남녀간에 정조와 도덕의 제한이 없이 부패한 사상과 망령된 행실이 일반적으로 유행하던 시대였다.

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시대는 사회가 부패하고 죄악이 충만한 시대였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일부일천(一夫一妻)의 윤리를 꺾하고 침을 부는 일을 다시 없는 쾌락으로 여기고, 사립을 좋아하고 양심에 가책받음이 없다. 자기의 세력만 의지하여 “만일 기원을 죽이는 자가 벌을 칠배나 받음이라 레벳을 죽이는 자는 칠십 칠배나 받으리라”(창 4:24)는 말을 잊고서 하리 만치 혼란하였으며, 기심이 없었다. 또 그 시대의 교회 상태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리를 지존하지 못하고, 성실한 절제의 뜻을 살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과 혼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너취하였으며, 만사를 오직 정욕대로 자행하고, 그 시대의 풍조

그러나 에녹은 그러한 시대에 살았으나 능히 속화를 불리치고 시대의 사조를 거스리며, 강물에 뜬 배와 같이, 진흙 가운데 피어난 연꽃과 같이 굳은 지조와 맑은 절개로써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오늘날 시대의 죄악을 다시 말할 필요없거니와 시대의 어떠한 것이어도 결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만일 방해가 된다면 이는 표면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심중(心中)에 있는 것이다.

에녹의 희망은 그리스도의 재림이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기록한 자와 함께 재림하셨나니”(유 1:14)라 한 것을 보면, 이는 곧 에녹의 소신(所信)이다. 그 시대가 부패하여 갈수록 에녹

의 주님 재림의 소망은 더욱 더 빛나게 되었다. 오늘 교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더구나 예수께서 오시기 4,000년전에 그 재림하실 것을 예언한 것은 순전히 성령의 감화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세상에만 소망을 둔 사람들에게는 이와같은 빛나는 소망이 그 마음에 비주어지지 않는다. 아— 이와같은 소망이 없는 자의 행하는 일은 무엇일까? 사회개량 미명(美名) 하에 오히려 사회를 부패케 하며 혹은 명예와 금전을 탐하여 그 소망이 오직 땅위에 속하여, 세치도 떠오를 만한 용기조차 없는 자이다. 그러나 에녹은 주의 재림에 소망이 있는 교로 능히 성결한 삶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연락(聯絡)하며 동행하는 생애를 살게 된 것이다. 동시에 에녹은 육신으로는 여러가지의 곤란(困難)인 형편과 짐박이 있었지만 다행히 죄인이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바로 진하여 사람들을 경성케 하였다. 에녹은 사회의 진보를 말하지 않고 사회의 죄악을 말하였고, 에녹은 사회를 개량하려 하지 않고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려 하였다. 에녹은 사회가 장차 황금시대가 된다고 말하지 않고 사회가 장차

심판받을 것을 예언하였다. 이것이 참된 예언이다.

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비밀은 신앙이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늘 증거를 받았느니라”(히 11:5).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보이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신앙으로 하였다. 에녹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임재(臨在) 하심을 영의 것으로 인식하였고, 밤중에도 인식하였고, 암실에서도 인식하였는데,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래서 그는 동행(同行) 動 靜이 보는 하나님 임재의 증거 하였다. 보는 보이는 것은 외적(外的)으로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내적(內的)이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았으며, 하늘을 찾는 자에게 줄 것인 줄을 보았으며, 영생을 보았으며, 영생을 보았으며, 그는 오직 살아 있는 자로써 하나님으로 생활하고 신앙으로 생활하는 영혼으로 마차게 되었다. 에녹은 이 세상에 거릴 것 없었고, 외적(外的)이었다. 그래서 다행히 거닐지 않았으며, 큰 길로 자유롭게 떠났을 때, 그러나 저가 타일 때 하나님께 영혼을 주셨고 불로 주셨을 때, 불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비밀은 신앙

**성결함으로 주와 더불어 동행한 사람은 이와같이 비참하고 두렵고 떨리는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공중혼연으로 데려가시기를 에녹을 데려가시듯 하실 것이다.**

님이 승천케 하셨는데, 그 당시 최악이 관영하였음으로,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시고 홍수로 멸하시려 하실 때에 먼저 에녹을 하늘로 옮기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 최악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성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성도를 공중 혼연(婚筵)으로 데려가실 예표(豫表)가 되었다.

에녹은 300년간에 모든 시험과 궁핍을 이기고 끝내는 홍수의 대 환란을 만나지 않고 영광의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려 하는 때이다. 사람들의 사상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정치는 안락질서를 유지하기 극난하다. 사회운동에는 무정부주의나 공산주의가 떠들고, 민족운동에도 각종 사상과 주의를 부르짖고 있으니, 어느 날 어느 시에 무슨 사건이 폭발될 지 예기하기 어렵고, 각처에는 기근이 일어나며, 각 나라는 전쟁

을 준비하고, 동경 대 지진 후에도, 인도, 파사, 이태리, 러시아 등지에 강한 지진이 일어나서 가옥이 파괴되고 인명이 상하고 있음을 현재 우리가 목도하는 바이다. 지금 전세계는 정치, 경제, 사상, 생명까지도 완전한 것이 없이 내용으로는 물 끝듯 하지 않는가. 이것이 곧 대환란의 시작이다. 이것이 탕-하고 터지는 날에는 그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때일 것이다. 그러나 옥석(玉石)이 구분되지 않는다. 성결함으로 주와 더불어 동행한 사람은 이와같이 비참하고 두렵고 떨리는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공중혼연으로 데려가시기를 에녹을 데려가시듯 하실 것이다. 불탈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주와 동행하자 (살전 4 : 16, 17).

〈본란, 이병직목사의 설교집 제1권에 수록된 것을 본지 발행인 홍순관목사가 현대적인 표현으로 정리하여 옮긴 것이다—편집자주〉

168